

엔트로피, 플라즈마 스프레이 양산

100억원 투자한 안산2공장 준공 ... 반도체 토탈 솔루션기업으로 도약

반도체·LCD 전공정 장비 핵심부품 생산기업인 엔트로피가 4월27일 경기도 안산에서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100억원이 투자된 1300평 규모의 제2공장은 신규사업인 플라즈마 스프레이와 ESC(Electrostatic Chuck) 개발, 서셉터(Suscepto) 양산, 정밀가공을 맡게 된다.

플라즈마 스프레이 사업은 화학증착·에칭설비의 챔버용 부품 제조를 위한 표면처리 공정에 산화알루미나막(Al_2O_3), 산화이트륨막(Y_2O_3)을 형성하는 방식이며 ESC는 반도체·LCD 제조장비의 진공 챔버 내부에서 정전기의 힘만으로 기판을 하부전극에 고정시키는 부품이다.

엔트로피는 5, 6세대 ESC 양산에 들어가며 5월 중순경 7세대 제품도 개발 및 양산을 시작해 2005년 약 100억원의 초기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트로피는 서셉터 양산능력 확대, 7세대 및 8세대 LCD 부품 정밀가공을 위한 차세대 부품 개발, LCD·반도체 장비 개조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토탈 솔루션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2005년 말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에도 신규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엔트로피는 2004년 매출액 120억원, 순이익 25억원을 기록했으며 2005년 매출액 400억원, 순이익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29>